

# 일상 개념 연구\*

— 이론 및 방법론의 정립을 위한 소론 —

고지현 |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HK연구교수

■ **논문분야** 철학, 인문학 방법론

■ **주 제 어** 일상 개념(일상사), 심성, 라이하르트, 상호 텍스트, 의미장(개념장, 낱말밭)

■ **요 약 문**

일상 개념 연구의 이론 및 방법론은 코젤렉(Koselleck, Reinhart)의 개념사 이후에 전개된 역사적 의미론의 쟁점과 그 향후 전망 속에서 모색될 수 있다. 라이하르트(Reichardt, Rolf)의 사회사적 의미론은 역사적 의미론의 이론적 지평을 심성사로 확장하는 한편, 어휘통계학과 구조적 의미장을 결합함으로써 일상 텍스트의 방대한 자료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그러나 어휘통계학은 질적 연구와의 견실한 융합을 조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계량적 방법이 지닌 취약성을 노출하기도 한다. 역사적 의미론을 담론 분석으로 확장·심화하려는 상호 텍스트론이 바로 질적 연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한편 어휘통계학에 기반을 둔 의미장에서는 의미의 변천을 읽어낼 수 있다기보다는 의미의 통일적인 구조를 보게 된다. 그러한 점에서 의미의 역사성, 곧 언제, 어떤 조건 하에 새로운 의미가 발생하는가라는 물음이 제기된다. 이에 대한 성찰은 결국 의미장의 닫힌 구조를 열린 구조로 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 접수(2010.5.15), 심사 및 수정(2010.6.14), 게재확정일(2010.6.14)

## 1. 서론

서양에서 일상성의 논제화는 이 주제 자체가 지닌 독특성과 인식론적 가치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학계에 지배적으로 관철된 연구 경향의 일면성과 특정 시각의 일방통행적 독주에 대한 대안으로 제기된 측면이 강하다.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국가 중심적이고 큰 흐름의 정치적 사건에 치중된 '거대' 담론에 맞서 이른바 '작은' 전통에 주목하는 민중사적인 맥락에서 일상사가 거론되었고, 또 기술 진보주의와 합리성을 준거로 한 유럽 중심주의적 근대화 담론에서 탈피하여 비유럽 지역의 전근대적인 형태 속에 침전되어 있는 고유한 역사 의식 및 역사 전승 방식을 구제하기 위한 일환으로 일상계에 대한 관심이 촉구되었다. 후자의 경우 유럽과 비유럽이라는 이분법적 고찰 방식을 고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유럽성이 유럽적인 문화와 역사 안에 존재하는 낯선 계기와 차이 및 대립을 조우하게 하는 지표라는 사실을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가 크다. 이 같은 대안적 문제 제기는 주로 문화 연구와 결합하면서 미시사적인 연구 방식을 주도했고, 실질적인 연구도 주제별·관점별 편차를 보이면서 커다란 계분화하는 경향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일상성은 프로젝트의 지향점과 관심 주제에 따라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으며, 그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통일적 패러다임이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개념을 통해 일상성을 고찰하는 연구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일상계에 대한 문화 연구는 매우 다양하고 풍부하지만, 일상을 주제로 한 개념 연구는 방법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극히 드문 형편이다. 더군다나 연구가 개념의 의미 변천을 따라 일상성의 역사를 재구성하려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현상학적인 접근 방식은 문화 연구에 자극제가 될 수 있을지언정, 개념사의 실질적인 도구로 활용되기에는 여전히 추상적인 논의에 머물러 있다. 일상계를 포괄하는 방대한 사료도 또한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온다. 한마디로 말해, 일상 개념을 전면에 내세운 독자적인 기획이란 찾기 어려우며,

자기 완결적이고 체계적인 이론과 방법론도 또한 부재한 실정이다. 그러나 개념사를 기점으로 전개된 논의에서는 역사적 의미론에 일상의 문제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무엇보다도 개념사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동기에서 출발한 것이지만, 역사적 의미론을 심화·발전시키고 있는 기획에 일상 개념이 일부 포함되어 사례 연구로서 고찰 가치가 있는 결과물을 도출하기도 하였으며, 이론적·방법론적 논의에 있어서도 일상 개념 연구와 관련된 매우 돋보이는 성찰을 가져오기도 했다. 따라서 개념사를 중심으로 전개된 논의를 추적하면서 일상 개념 연구의 전망을 타진해 보는 일은 매우 유의미하고 가치 있는 고찰이 될 것이다.

## 2. 일상 개념의 전망 속에서 바라본 역사적 의미론

### 1) 코젤렉 이후 개념사의 쟁점들

19세기 문헌학, 곧 고전 문헌학에서 역사적 의미론은 중요한 연구 분야 중의 하나였다. 세계사적으로 유일무이한 시대를 깊이 간파해내는 데 있어 과거의 언어로 표명된 의미들을 재구성하는 일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전제 조건이었으며, 그러한 과제를 떠맡은 것이 바로 문헌학이었다. 방법론에 대해서도 성찰이 이루어졌다. 문헌의 맥락 속에서 수행되는 해석학이 역사적 의미론의 방법으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19세기 중반부터 개별적 체계와 자율성의 원리에 의거한 분과 학문의 관념이 등장하면서 언어적 고찰 방식과 역사적 고찰 방식이 서로 분리되기 시작하였다. 언어학과 문학이 분과별로 독립하자 그간 긴밀한 연계를 이루었던 언어와 문헌의 문제가 학문적 고찰 대상으로서 갈림길에 들어섰다. 물론 역사적 고찰 방식은 언어학에서는 언어사로, 문학에서는 문학사로, 대상의 성격 규정에 따라 보존되는 듯이 보였으나, 실상 역사에 대한 구상에 있어서는 각자 다른 길을 걸었다. 문

학사의 기술은 기본적으로 사건사로 이해되었던 반면, 언어학적 역사 구상은 엄밀한 법칙에 종속된 자연 과학적 모델로 정향되었다. 따라서 언어학은 음운 변화의 법칙을 해명하는 일을 주된 과제로 삼았고, 언어사의 관점 또한 음운 변화의 계열에 따른 의미 변화의 법칙을 발견하는 일로 축소되었다. 이로써 19세기 문헌학적 백과전서파의 의식에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 있었던 역사적 의미론은 문학에서도 언어학에서도 자취를 감추게 된다.

라인하르트 코젤렉의 개념사가 일구어낸 커다란 성과 중의 하나를 꼽으라면, 새로운 문제 제기과 결합한 역사적 의미론의 복원이라 할 것이다. 그동안 독일에서 개념사라 하면 무엇보다도 '개념 철학'이었다. 장구한 세월 동안 지대한 영향을 미친 여러 사상이나 위대한 작품 또는 신조에는 시대적 배경과 역사적 맥락을 초월하는 순수 결정체로서의 관념이 지속적으로 작용하며, 그러한 순수 관념의 존재를 정당화하면서도 명료화하는 일이 철학에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개념 철학은 궁극적으로 특정 개념이 각 시대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떤 관점에서 표명하며, 또 어떻게 이해되었는가를 묻기보다는, 관념들의 복합체 속에 나타나는 모호함과 혼란스러운 연관, 곧 오류를 밝히는 데 치중했다. 이와 같은 전통적 관념사 또는 사상사<sup>1)</sup>와는 달리, 코젤렉의 『역사적 기본 개념』은 개념사를 정치·사회적 맥락 속에서 전개되는 의미의 역사로 파악한다. 역사적 의미론에 함축되어 있는 사회사적 연구라는 매우 포괄적인 문제 제기는 기존의 사료 편찬에서 직접적인 묘사나 보고의 형식으로 제시된 사건사 또는 사태사로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어적 인식 과정에서 재발견될 수 있는 구체적인 경험들과 기대들”<sup>2)</sup>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코젤렉의 기획은 분과 학문을 뛰어넘어 역사학자, 법학자, 경제학자, 철학자, 신학자 등 전문 학자들을 한곳에 집결시킨 방대한 학제간

연구 성과를 일구어내기에 이른다.

이 같은 성과는 국제적 차원에서 전폭적인 호응과 찬사를 받음과 동시에, 프로젝트 자체에 내재한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잖게 등장하면서 개념사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비판의 화살은 무엇보다도 개념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능케 한 조건들에 집중되었다. 사회사적 문제제기를 뒷받침할 이론적 토대와 언어론적 요소, 방법론 사이에 여전히 극복하지 못한 틈새가 존재한다<sup>3)</sup>는 한계가 지적되는데, 그것은 그 자체로 이론적 통찰의 미흡함, 방법론의 불안정성, 또 인식 발견술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예견을 충분히 정당화할 수 있는 명료한 논거의 부재 등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코젤렉의 성과는 역사적 의미론의 자기 완결적인 체계를 제공했다기보다는, 그것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이정표를 모색하기 위한 초석의 역할을 했다고 말할 수 있다. 점차적으로 독문학자의 개입으로까지 확산된 토론은 코젤렉이 제시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심화·발전시키고 동시에 개념사의 연구 대상 또한 심층적인 차원으로 확장하려는 의도를 분명하게 표명한다. 바로 여기에 개념사를 둘러싼 논쟁이 우리에게 흥미로울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논쟁의 전개 과정에서 우리의 관심사인 일상 개념 연구의 단초들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단초들을 중심으로 코젤렉 이후 대두된 개념사의 쟁점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코젤렉의 기본 개념은 대(大)사상가를 중심으로 문헌 텍스트의 선별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그 텍스트 읽기 방식이란 ‘정상(頂上)에서 정상(頂上)으로의 이동’이라는 전통 철학적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으며,<sup>4)</sup> 바로 그러한 점에서 개념사가 애초 극복하고자 했던 전통 관념사를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기본 개념의 사회적 대표성을 충족하기 위한

1) 이에 대해서는 나인호, 2009, 「개념사는 어째서 새로운가」, 162~165쪽을 참조할 것. (출처와 연도는 참고문헌을 참조할 것. 각주에서는 문헌의 제목만 표시한다.)

2) Koselleck, Reinhart(1983), “Begriffsgeschichtliche Probleme der Verfassungsgeschichtsschreibung,” p.45.

3) Gumbrecht, Hans-Ulrich(1979), “Für eine phänomenologische Fundierung der sozialhistorischen Begriffsgeschichte,” p.76.

4) Reichardt, Rolf(1985), “Einleitung,” p.63; Schultz, Heiner(1979), “Begriffsgeschichte und Argumentationsgeschichte,” p.50.

조건은 무엇인가라는 물음과도 직결된다. 개념사가 왜 “일상 텍스트를 경시”<sup>5)</sup>해야 하는지, 이에 대해 납득할 만한 근거가 제시되지 못하는 한 ‘엘리트주의’라는 혐의<sup>6)</sup>를 털어버리기 위해서도 일상어의 포괄적인 수용이 불가피하다는 데 일련의 학자들은 공감하고 있다.

둘째, 코젤렉은 역사적 현실이 언어적 파악과는 전혀 무관할 수 없다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인식론적 관점에서 대두될 수밖에 없는 언어의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현대 언어학, 특히 구조주의 언어학”과 일정 거리를 두면서도, “언어학적인 개입을 활용한다”<sup>7)</sup>는 지침은 이론적인 면에서나 방법론적인 면에서 아무것도 말해주는 것이 없다. 사실 언어에 대한 성찰은 개념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를 구체화하는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원론적인 수준에서 말하자면, 개념사 연구의 주된 동기는 의미의 역사 및 그 내용의 해명을 통해 한 시대를 지배한 의식과 동시대인의 자기 이해를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에 있다. 이를 코젤렉의 경우 ‘경험과 기대’라는, 칸트 철학을 연상시키는 범주 안에 포착하는데, 이로써 개념사의 지향점이 추상적인 차원에 머물고 만다. 논의의 대상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부분이 언어에 대한 성찰과 매개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일상어의 적극적인 수용을 옹호하는 입장은 개념사의 이론적 토대로 심성사를 제안한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세하게 논의될 것이다.

셋째, 코젤렉은 연구 대상을 규정하기 위해 개념을 단어와 구별하지만, 그 논거가 그리 명쾌한 것은 아니다. “개념은 단어에 근거하기는 하지만, 동시에 단어 이상이다.” “단어는 사용되면서 명확해질 수(=일의적일 수, eindeutig) 있다. 반면에 개념은 개념이기 위해 다의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일 수 있으나, 코젤렉 자신이 인정하고 있듯이 단어의 본질 자체도 다의성에 기초해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면 그렇게 통찰력 있는 논변

이라고 볼 수 없다. 실제로 코젤렉에게 있어 개념은 인지적 실재인지 아니면 단어의 또 다른 표현에 불과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sup>8)</sup> “개념은 그것이 파악하는 연관에 대한 지표일 뿐 아니라, 그것 자체가 하나의 요소이다.”<sup>9)</sup> 개념이 전자의 경우라면 인식의 기능일 터이지만, 후자라면 연관을 구성하는 의미를 가리킬 것이고, 그것은 불가피하게 단어의 의미층들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이렇듯 개념에 대한 이해가 인식의 기능과 언어 기호 사이를 동요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언어에 대한 성찰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방법론상 파생되는 그 직접적인 귀결은 ‘파악되어야 할 연관들’, 곧 의미망의 분석이 매우 불안정한 형태를 띠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코젤렉의 개념사를 비판적으로 계승하려는 기획들은 언어의 의미를 보다 정밀하게 포착하기 위해 말, 곧 단어의 텍스트 분포를 분석 단위로 설정하며, 특히 일상어로 확장하는 경우 그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된다.

넷째, 마지막으로 담론 분석의 전적인 결여가 한계로 지적된다. 담론 분석적 문제 제기는 언어학적 성찰을 중심으로 문헌 자료로 활용되는 텍스트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는 일에서부터 의미의 연관성을 지식의 역사로 포착하는 일까지, 또 더 나아가 의미의 역사성에 대한 재조명 등, 매우 폭넓은 논의에 걸쳐 있다. 우리의 주된 관심은 역사적 의미론이 담론 분석과 결합하는 지점인데, 그 이유는 여기에서 심성사의 프로그램이 보다 엄밀한 방식으로 담론사로서의 개념사로 규정됨으로써 일상 텍스트가 역사적 의미론의 연구 대상으로 포착될 수 있는 조건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오늘날 담론 연구라는 것이 어떤 이론적 배경에 위치하는지조차 판가름할 수 없을 정도로 전 학문 영역에 유행어로 번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간략하나마 담론 개념 자체에 대한 정리가 불가피해 보인다.

5) Busse, Dietrich(1987), *Historische Semantik. Analyse eines Programms*, p.65.

6) Polenz, Peter von(1973), “Rezension von Brunner/Conze/Koselleck 1972, Bd.1,” p.236.

7) Koselleck, Reinhart(1972), “Einleitung,” p.21.

8) Busse, Dietrich(1987), *Historische Semantik*, p.61, 또한 개념과 단어의 구별이 모호하다는 지적은 Hermanns, Fritz(1995), “Sprachgeschichte als Mentalitätsgeschichte. Überlegungen zu Sinn und Form und Gegenstand historischer Semantik,” p.81, p.85를 참조할 것.

9) 코젤렉, 라인하르트(2007), 『지나간 미래』, 한철 옮김, 134~135쪽.

프랑스의 경우 담론 연구는 매우 일찍이 활성화되어 각 연구 분야로 자연스럽게 확산되었지만, 독일의 경우 담론 개념 자체에 대한 저항감이 먼저 앞서 그 연구 경향을 받아들이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했다. 독일에서의 이와 같은 지체 현상은 무엇보다도 알튀세르(Louis Althusser)에서 푸코(Michel Foucault)에 이르는 이른바 구조주의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프랑크푸르트학파로부터 영향을 받은 신좌파의 경우 프랑스의 구조주의 또는 후기구조주의를 일종의 역사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였고, 그러한 가운데 담론 분석에 비합리주의라는 레테르가 붙었다. 문제는 담론에 대한 인식이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제2세대를 대표하는 하버마스(Jürgen Habermas)의 개념과 혼선을 빚으면서 매우 피상적인 수준에서 회자된다는 점이다. 하버마스의 담론 개념은 공론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담화론으로, 합리성을 규범으로 한 이상적 상태, 곧 지배로부터 자유로운 토론을 목표로 하였다. 반면 담론 분석적 의미론은 텍스트를 통해 특정 규칙에 따라 기능하는 언술 방식과 그 역사적 변화를 읽어내려 하기 때문에 사실상 하버마스의 철학적 기획과 결합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sup>10)</sup> 언어학에는 하버마스의 담화론과는 맥을 달리하는 담론 분석의 전통이 있다. 여러 사람들 간의 대화 및 토론 그리고 논쟁의 분석이 바로 그것인데, 이 경우 한 사람의 언술 또한 유사 대화적 성격으로 규정된다. 이것이 영미권에서 통상 행해지는 담론 분석이며, 또 독일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미이다. 이와 달리 각별한 의미로 쓰이는 것이 바로 푸코의 담론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 푸코를 역사에 적대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역사 연구의 다른 길을 탐색한 철학자로 받아들이는 독일 학자들이 등장하면서 그의 담론 이론 또한 점차적으로 수용되기 시작했다. 푸코의 담론은 제도화된 언술 방식을 뜻하며, 무엇

10) 이와 같은 차이에 대해서는 Link, Jürgen(1988), "Literaturanalyse als Interdiskursanalyse. Am Beispiel des Ursprungs literarischer Symbolik in der Kollektivsymbolik"; Plumpe, Gerhard(1988), "Kunst und juristischer Diskurs. Mit einer Vorbemerkung zum Diskursbegriff"를 참조할 것.

보다도 에피스테메, 곧 과학사적 고찰에 집중되어 있다. 푸코의 이론은 역사적 의미론을 담론 분석으로까지 확장하는 데 있어 일종의 가교 역할을 한다.

## 2) 일상 개념의 이론적 기반으로서 심성사

개념사에 있어 왜 언어의 문제가 중요한가? 개념사란 언어의 형식으로 전래되는 개념을 연구 대상으로 삼으며, 언어 현상의 무대 곧 텍스트를 읽어내는 방식이다. 따라서 언어의 문제 제기에는 언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의미의 생산 및 전유 과정을 역사적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요구가 담겨 있다. 언어란 인간이 세계를 인지하는 수단이자 그에 대한 자기 이해를 표현하는 매개물이며, 한마디로 세계를 전유하는 양식이다. 그것은 의사소통과 같이 인간의 상호 교류 형식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애초부터 사회적 성격을 지니며, 전유의 양식 또한 시대에 따라 달리해 왔다는 점에서 역사적 산물이다. 이렇게 보면 개념사는 세계에 대한 지식의 역사와 의사소통의 역사를 포괄할 수밖에 없다.

언어는 세계를 구성하는 힘을 내재하고 있는데, 그 연관성을 가장 먼저 적절하게 정식화한 것이 '언어를 사유의 표현'<sup>11)</sup>으로 본 헤르더(Herder, Johann Gottfried)의 언어 철학이다. 이 같은 통찰을 이어받아 훔볼트(Humboldt, Wilhelm von)는 "언어를 형상화하는 인간의 힘"을 세계와 타자와의 대화 속에서 "세계를 사유로 변형시키는 행위"로 규정한 바 있다.<sup>12)</sup> 이보다 후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중요한 진술이 있는데, "각각의 언어 속에는 독특한 세계관"<sup>13)</sup>

11) "사유한다는 것은 말하는 것과 거의 다를 바 없다." Herder, Johann Gottfried(1960), *Sprachphilosophie. Ausgewählte Schriften*, p.100.

12) Humboldt, Wilhelm von(1963), *Schriften zur Sprachphilosophie*, (Über die Verschiedenheit des menschlichen Sprachbaues und ihrem Einfluß auf die geistige Entwicklung des Menschengeschlechts, 1830~1835), p.413.

13) Humboldt, Wilhelm von(1963), *Schriften zur Sprachphilosophie*, (Über die Verschiedenheit des menschlichen Sprachbaues, 1827~1829), p.224.

이 담겨 있다는 시각이 바로 그것이다. 언어의 상이성(다양성)이 세계관 자체의 상이성(다양성)을 표현한다는 주장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가장 많이 인용되고 또 언어 철학의 기본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언어학적 연구 대상으로는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훔볼트의 후예들이 언어를 국민(민족) 언어와 동일시함으로써 파시즘이 그것을 원초적 태고형의 문화 민족주의 정책에 활용하는 빌미를 제공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동일시는 언어공동체의 다양성을 단일한 통일 민족 언어로 환원할 뿐만 아니라, 언어의 역사성과 사회적 관계를 전적으로 간과하는 결과를 낳았다. 어찌됐든 파시즘이라는 역사적 경험은 독일 학계에서도 일종의 트라우마로 작용했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나치의 경험은 훔볼트의 언어 철학이 다른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 우회로를 걷게끔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우회로란 다름 아닌 프랑스 아날학파에서 시작된 심성사 연구의 수용이다.

아날학파의 창시자인 루시앵 페브르(Lucien Febvre)와 마르크 블로크(Marc Bloch)는 이미 1930년대부터 사회사와 경제사뿐 아니라 문화, 의식의 형태 등과 같은 '제3차원'의 문제에 역사적 시선을 던질 필요가 있음을 피력했다. 단순하게 관념이나 헤겔식의 시대정신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과는 다른 존재 양식, 요컨대 지금까지 정신적이라 간주된 차원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차원이 '심성(mentalité)'과 '심성적 도구(outillage mental)'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제시되었다. 아날학파의 심성사 기획은 유년기와 죽음에 대한 태도를 다룬 필립 아리에스(Philippe Ariès)의 『아동의 탄생』(1960)과 『죽음 앞의 인간』(1977)으로 이어지며, 관점의 통일을 지양한 채 풍속사, 예술사, 정치사, 일상사 등을 아우르는 아리에스와 뒤비(Georges Duby)의 『사생활의 역사』(1980)로 결실을 보게 된다. 독일에서의 수용도 그러하지만, 프랑스의 심성사가 세계적으로 급속도의 파급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것은 그 문제 제기가 함축하고 있는 일상의 차원에 대한 관심 때문이다. 심성 개념은 일상의 문제를 인류학적·심리학적 의미에서 바라볼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복식 풍속, 성 풍속, 독서의 역사, 아주 사사로운 세면이나 세탁의 풍속까지도 연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다. 여기에 일상계를 역사적 의미론과 결합시키려는 시도도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심성이란 무엇인가? 우리에게 알려진 전문 학술 용어를 빌리면, 심성사는 로고스보다는 파토스와 에토스 그리고 그로부터 촉발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신사나 관념사와 구별될 뿐만 아니라, 이성 중심주의와 합리성 중심주의에 대항하는 연구 경향이다. 의식의 역사를 내용 안에 담고 있다 하더라도 의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인 것을 포함하며, 사유의 측면도 감정과 의욕 그리고 정념의 상태와 매개되는 차원을 가리킨다. 세계의 인식에 있어서도 심리적 인지 방식에 초점을 두고 있고, 따라서 대상 또는 사태에 대한 태도를 고찰 대상으로 삼는다. 전반적으로 볼 때 심성사는 이데올로기의 역사에 가장 근접하는데, 다만 이데올로기 개념이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는 당파를 겨냥해 경멸적으로 사용하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사회적 사실'<sup>14)</sup>로 다루는 객관적 범주를 의미하는 경우에 그러하다.<sup>15)</sup> 물론 이데올로기 하면 즉시 마르크스주의의 토대와 상부구조론을 떠올리며 낡은 것으로 치부되고, 또 그 경제 원리로의 환원주의에 대해 건설적이기보다는 소모적인 논쟁이 더 지배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상황은 오히려 이데올로기에 대한 학문적 토론이 그 자체로 이데올로기화했다는 사실을 반증하기도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마르크스주의의 거대 서사를 가능하게 한 계급(계급투쟁) 개념에 대한 다음과 같은 논평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심성'으로 표시되는 집단 현상들은 특정 계급에 직접적으로 연관, 즉 환원되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심성 개념은 일상적 의식 형성과 행동 형식

14) Schöttler, Peter(1988), "Sozialgeschichtliches Paradigma und historische Diskursanalyse," p.160.

15) 연구 대상으로서 심성사에 대해서는 Hermanns, Fritz(1995), "Sprachgeschichte als Mentalitätsgeschichte," pp.72~79를 참조할 것.

을 실재(實在)의 범위로서 연구할 수 있게 해준다. 실재는 물론 계급의 사회적 역장 안에 존재하지만, 이 장과 관련하여 매번 새롭게 분석해야 할 작용 연관 관계 안에 있다. 기호와 감각, 견해와 꿈은 소위 '계급적 입장'의 직접적 표현이 아니다. 그리고 경제의 장기적 발전, 경기, 사회적 긴장 등과의 특수한 연계(또는 분리)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것들은 우선 그 자체로서 진지하게 여겨져야 한다.<sup>16)</sup>

여기에 심성사가 일상 개념의 이론적 기반이 될 수 있는 핵심이 있다. 심성은 오랜 세월을 걸쳐 굳어지거나 반복을 통해 익숙해진 사회적 집단의 습관이다. 믿음으로 뿌리내린 사유의 관성이자 체질화된 아비투스이며,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의식의 표면으로 떠오르기보다는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는 범주이다. 일상성의 본질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러한 진부성에 있다는 점에서 심성사는 일상 개념 연구에 이론적 전망을 제공한다. 이례적인 것, 비범한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너무나 평범하기에 하찮고 사소한 것으로 치부되어 우리의 의식을 비켜가는 대상들<sup>17)</sup>에 천착할 필요가 있다. 개념을 통한 이 범주의 연구는 초역사적으로 자연화된 삶의 영역에 역사성을 부여하고, 관성화된 무감각<sup>18)</sup>을 일깨운다.

언어를 사유 및 세계관의 표현으로 본 헤르더와 훔볼트의 시각은 심성사의 문제 제기와 일맥상통한다. 다만 프랑스의 심성사는 언어 철학보다는 문화를 교두보로 삼아 일상계를 주제화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물론 아날 학파는 애초부터 언어 분석의 중요성을 의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 의미론을 옹호하는 입장도 표명했지만,<sup>19)</sup> 심성사적 문제 제기가 역사적

의미론과 직접 결합하기 위해서는 푸코의 담론 이론을 거쳐야만 했다. 푸코에 자극받아 언어학적 문제 제기를 통해 담론 분석을 심성사로 결합한 사람이 로뱅(Régine Robin)과 페쇠(Michel Pêcheux)이다. 이 둘은 아주 실질적인 담론 분석 방법을 개발하면서 역사적 의미론에 새로운 전망을 제시했다.

### 3. 라이하르트의 사회사적 의미론

코젤렉의 한계를 넘어 역사적 의미론을 심성사 및 담론 분석과 결합하는데 획기적으로 기여한 학자가 롤프 라이하르트이다. 라이하르트는 '물질적 관계와 사물에 대한 사회사적 언술이 아니라 언어의 사회적 성격'<sup>20)</sup>을 다루는 사회사적 의미론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사적 의미론은 견고하게 구축된 방법론을 토대로 1680~1820년에 걸친 『프랑스에서의 정치·사회적 기본 개념 편람』으로 결실을 보았다. 물론 제목이 시사하고 있듯이, 라이하르트의 편람은 프랑스를 중심으로 정치·사회적 기본 개념의 근대적 변화를 추적하고 있는 것이지, 일상 개념이 주된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 텍스트의 포괄적인 수용을 통해 기본 개념의 사회적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했고, 그 결과 어떤 개념은 (예컨대 '바스티유Bastille'와 '교양인honnête homme'과 같은 항목) 일상 개념 연구의 사례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심성사적 고찰 방식을 충족하고 있다. 특히 라이하르트의 담론 분석을 포괄한 방법론은 일상 개념 연구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목을 요한다.

#### 1) 담론 분석적 어휘통계학

이른바 '언어적 진회'라는 흐름 속에서 급격하게 부상한 신문화사는 일찍

16) 쇠틀러, 페터 외(2002), 「심성, 이데올로기, 담론—제3차원의 사회사적 주제화에 대하여」, 135쪽.

17) Jehle, Peter(1990), "Alltäglich/Alltag," p.108.

18) Jehle, Peter(1990), 위의 글, pp.116~118.

19) Schöttler, Peter(1988), 앞의 논문, pp.161~163.

20) Reichardt, Rolf(1985), 앞의 논문, p.64.

이 아날학파가 제기한 심성의 문제를 문화사 서술이라는 전망 속에서 공론화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신문화사는 심성의 구조를 계량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주로 미시 분석적 접근 방식을 선호했다. 하지만 신문화사가 기본적으로 사회·문화적 의미 지향성을 중요한 논제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미시 분석적 문화 연구가 의미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별로 없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하다. 라이하르트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듯이, 이 같은 모순은 방법론상의 “절충주의”<sup>21)</sup>에서 비롯되는데, 이로부터 발생하는 역사적 의미론과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라이하르트가 자신의 학문적 입지를 신문화사와 개념 연구의 방법론을 매개하는 역할로 자리매김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프랑스의 연구 경향과 독일의 연구 경향을 종합하기 위한 시도로 라이하르트는 먼저 로뱅과 폐쉬의 담론 분석적 어휘통계학을 받아들이고 있다.<sup>22)</sup> 로뱅은 사회 이데올로기의 연구 일환으로 수행된 개념 분석에 어휘통계학적 방법과 기호학적 방법을 도입한 최초의 인물이다. 그 뒤를 이어 폐쉬는 담론의 물질성을 강조하며 ‘자동주의적 담론 분석’을 개발하는데, 그것은 컴퓨터를 보조 수단으로 삼아 역사적 사료 텍스트에 나타나는 단어의 빈도수를 조사하여, 그로부터 어진 통계를 텍스트의 객관적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신문화사의 계량적 접근 방식에 대한 회의와는 달리, 라이하르트는 어휘통계학을 방법론상 실증성과 적확성에 바탕을 둔 엄격하고도 체계적인 척도를 제공한다고 보고 있다. 단어의 빈도수 분석은 문맥에 따른 단어의 용법과 동일 의미가 반복하여 출현하는 양상에 대해 빠짐없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유사한 맥락 속에서 불명확하고 혼란스럽게 사용되는 말들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해준다.

21) 라이하르트, 롤프(2009), 「역사적 의미론: 어휘통계학과 신문화사 사이」, 최용찬 옮김, 65쪽.

22) 라이하르트, 롤프(2009), 앞의 글, 75~76쪽; Reichardt, Rolf(1985), 앞의 논문, pp.61~62.

그러나 계량적 측정이 해석과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질적 연구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계량적 측정 방식은 기술상 한정된 사료라 하더라도 매우 강도 높은 작업과 시일을 요하는 까닭에 그 결과물이 파편적 성격에 머물기 쉽고, 의미의 장기 지속이라는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산발적인 미시적 분석에 그치는 경우 어휘통계학의 강점인 적확성과 세밀함이 의미론적 질적 연구를 희생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요컨대 단어의 빈도수가 사회사적 의미의 대표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의미의 연관성을 직접 지시해 주는 것도 더욱 아니다. 따라서 어휘통계학은 사회사적 의미론의 보조 수단이지 자기 목적이 될 수는 없다. 라이하르트는 어휘통계학의 강점을 살림과 동시에 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의미의 연관성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의미장을 도입하고 있다.

## 2) 구조적 의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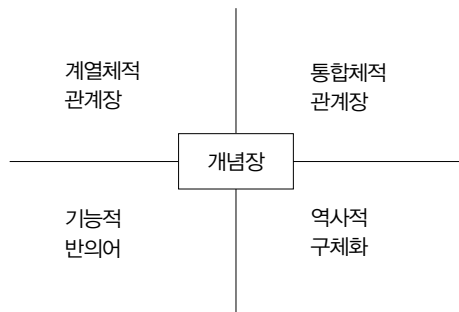
라이하르트가 개념 분석의 또 다른 방법으로 차용하고 있는 의미장은 트리어(Jost Trier)와 그 제자들에서 시작하여 코세리우(Eugenio Coseriu)에 이르는 독일 구조주의 언어학에서 유래한다. 의미장 이론은 이데올로기 이론을 배경으로 담론 분석으로 뻗어간 줄기와는 달리, 독립적 학문 체계로 언어학을 정립한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에서 출발하여 그의 이론의 취약점을 보완하고자 모색된 현대 언어학적 성찰의 산물이다. 소쉬르 언어학의 문제점은 파롤(parole)과 랑그(langue)의 분리 모델에 의거한 체계 이론 자체에 있다. 랑그가 집단적 소통의 수단이자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호 체계로서 언어학 본령의 연구 대상으로 규정된다면, 주관적·개인적 언술로서 파롤은 언어학적 대상에서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된다. 우연적이고 개별적인 계기로 치부되는 파롤은 독자적인 내적 질서를 따르는 랑그 체계의 규제를 거쳐야만 언어적 사실로 인정될 수 있다. 이 같은 방법론상의 이분법은 통시대와 공시대의 분리로 이어지며, 궁극에는 언어의 역사와 학문의 대상으로서 언



어의 체계가 서로 매개됨이 없이 이분화되는 결과를 낳았다.<sup>23)</sup>

문제는 이러한 체계 패러다임이 파롤과 통시태를 언어 체계 밖의 문제로 설정함으로써 언술 및 의미 발생과 관련된 범위를 고찰의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점이다. 바로 의미와 관련된 범주를 소쉬르의 구조주의적 시각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구체하려는 것이 트리어의 언어장 이론이다. 소쉬르는 기표와 기의의 관계를 기능적이고도 본질주의적으로 규정했다. 기호는 기표와 기의의 통일체이다. 각각의 기표는 그 기의가 있다. 그러나 “기의 자체는 랑그의 여타 모든 기의들과의 기능적 차이에 의해 규정된다.” 바로 이렇게 규정된 기의의 범위가 구조적 성격으로 특징지은 의미장이다. 동일선상에서 코세리우는 정태적 성격을 언어의 공시적 체계를 통시적·역동적 체계로 발전시키고자 했다.

라이하르트는 어휘통계학의 산출물을 의미장 안에 배치하고 있다.



도형에서 볼 수 있듯이, 의미장의 구조적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 개념을 둘러싼 네 가지 하위장이 구성되고 있다. ① 좌상에는 해당 개념을 직접 정의하는 모든 단어들과 어법이(계열체적 관계장), ② 우상에는 내용을 형용하고

설명하며 세분화하는 단어들이(통합체적 관계장), ③ 좌하에는 체계적인 대립 개념들이(기능적 반의어), ④ 우하에는 개념을 역사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말들이(역사적 구체화) 배치된다. 수직선을 중심으로 단어의 빈도수가 서열별로 표기되는데, 그것이 개념장에 근접할수록 위상은 높아진다.<sup>24)</sup> 개념의 변천은 특정 시기에 따라 의미장을 구성하여 그것을 서로 맞대보면 나타난다고 한다. 의미장은 개념장으로 또는 단어장으로 구성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동일한 구성 요건을 따르지 않는다. 예컨대 ‘바스티유’ 항목은 도형처럼 아주 밀도 높은 내용을 실은 네 가지 하위장으로 구성되지만,<sup>25)</sup> ‘교양인’ 항목은 통합체적 관계와 반의어, 두 장으로만 배치되고 있다.<sup>26)</sup> 그 이유는 바스티유의 경우 1789 혁명의 도화선이 되면서 시대적 전환기에 뜨거운 공방의 대상이었기 때문이고, 교양인은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로 아주 단순하게 양분화되는 이원론적 구조 이상의 것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의미장은 기본적으로 연구 대상의 성격에 좌우된다고 말할 수 있다.

### 3) 사회적 의미론의 이론적 토대: 심성의 범주로서 사회 지식

라이하르트는 소쉬르의 체계 패러다임으로 소급되는 구조주의적 언어학에 대해 그것이 파롤과 랑그의 분리 모델에 의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미 언급했듯이, 이 분리 모델은 언술 및 의미 발생과 관련된 범위를 언어학의 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애초부터 의미론적 문제 제기를 차단한다. 따라서 라이하르트가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한 트리어의 의미장을 방법론으로 차용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와는 또 다른

23) Busse, Dietrich(1987), *Historische Semantik*, pp.17~21; Stierle, Karlheinz(1979), “Historische Semantik und die Geschichtlichkeit der Bedeutung,” pp.156~157.

24) Reichardt, Rolf(1985), 앞의 논문, p.85.

25) 김학이, 2009, 「롤프 라이하르트의 개념사」, 113~114쪽.

26) Reichardt, Rolf(2000), “Wortfelder - Bilder - semantische Netz. Beispiele interdisziplinärer Quellen und Methoden in der Historischen Semantik,” pp.115~120.

방향에서 파롤과 랑그의 분리는 ‘언어공동체의 논리적 기호 체계’와 ‘언어를 실현하는 개인적 언술’을 이원화하는데, 사실 언어의 사회적 기능에서 볼 때 이 같은 분리만큼이나 인위적인 것도 없다. 논리적인 기호 체계는 자율적인 자기 법칙만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며, 의미의 (재)생산 조건과도 전혀 무관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라이하르트는 ‘언어의 사회적 것’이 이러한 인위적인 분리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sup>27)</sup>

그렇다면 사회사적 의미론에 함축되어 있는 ‘언어의 사회적 성격’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언어 관습, 즉 “개별자에게 실제 강제를 행사하고, 표현의 자유와 체제가 부여한 가능성을 전통적 실현 범위로 제한하는 규범”에 있다. 언어 규범은 코세리우를 인용한 것인데, 여기서 언어의 사회적 성격을 정태적·공시적 관점이 아니라, 통시적·역동적 관점에서 바라보려는 라이하르트의 시각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그는 한발 더 나아가 언어 규범을 “사회 지식”으로 근거지우고 있으며, 그 논거로 의존하고 있는 것이 버거(Peter Berger)와 러크만(Thomas Luckmann)의 지식사회학이다. 지식사회학에 따르면, 사회 구성원은 세계를 인지하고 합목적적으로 행동하며 서로 교류하기 위해 공동 체험과 침전된 경험을 “전형화”한다. 전형화는 “언어를 매개로, 기호 체계, 특히 일상어의 기호 체계”를 통해 이루어진다.<sup>28)</sup> 버거와 러크만은 일상계를 ‘정상적 성인이 상식의 태도 속에서 이미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는 현실의 영역’으로 이해하고 있다.<sup>29)</sup> 따라서 전형화의 과정은 개인의 경험과 분리될 수 없지만, 일상계에 바탕을 두고 있고 또 진화를 거쳐 규칙과 관습 및 법으로 제도화된다는 점에서 개인의 경험을 초월하는 경향이 있다. 인간은 사회화를 통해 전형을 습득하고, 그렇게 습득된 분류법 내지 유형을 활용하여 세계를 인지하며 행동한다. 한마디로 말해 전형은 역

사적으로 축적된 사회 지식과 다를 바 없다.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져볼 수 있을 것이다. 왜 언어의 사회적 성격을 규정하는 데 있어 코세리우의 언어 규범성에 만족하지 않고, 굳이 지식사회학을 끌어들이려 하는가? 주된 동기는 사회적 의미론의 연구 대상으로 지식의 역사를 포괄하려는 것인데, 지식의 문제를 사회적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정립한 사회학 이론이 소쉬르의 체계 패러다임을 둘러싸고 전개된 코세리우의 성찰보다 더 강력한 이론적 논거를 제공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결정적인 것은 전형이 언어의 “의미”에 조응한다는 논변이다.<sup>30)</sup> 이 시각은 사회 지식을 역사적 의미론과 결합하는 발판이 된다. 한편 라이하르트가 나름대로 전유하고 있는 지식사회학의 전형 개념은 아날학파의 심성적 도구 개념<sup>31)</sup>과 부합한다. 공동체적 규칙과 전형은 “집단적 경험을 묶어 주는 사회적 삶의 요소”이자, 근본적으로 “한 시대의 심리 문화적 하부구조, 곧 심성적 도구이며, 정신적 태도와 심성을 특징” 짓는다.<sup>32)</sup> 일찍이 프랑스의 심성사에 지대한 관심을 보인 라이하르트는 심성적 도구를 “인지적 구성 요소”로 정의내리면서 지식의 차원을 포착한 바 있다.<sup>33)</sup> 결국 라이하르트의 사회적 의미론은 심성으로서의 사회 지식을 역사적 의미론의 대상으로 다루려는 기획인 셈이다.

#### 4. 언어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담론 분석과 역사적 의미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사회사적 의미론에는 언어학적 관점이 현

27) Reichardt, Rolf(1985), 앞의 논문, p.68, pp.80~81.

28) Reichardt, Rolf(1985), 앞의 논문, pp.64~65.

29) Gumbrecht, Hans-Ulrich(1979), “Für eine phänomenologische Fundierung der sozialhistorischen Begriffsgeschichte,” p.83에서 인용.

30) 상세한 논의로는 Gumbrecht, Hans-Ulrich(1979), 앞의 논문을 참조할 것.

31) 심성적 도구란 페브르가 『16세기 무신앙의 문제—라블레의 종교』라는 연구서를 통해 처음으로 개념화한 것으로, 보다 일반화하여 말하자면 세계를 인지하기 위해 정신계에 활용되는 도구를 가리킨다.

32) Reichardt, Rolf(1985), 앞의 논문, p.67.

33) Reichardt, Rolf(1978), “‘Histoire des Mentalités’: Eine neue Dimension der Sozialgeschichte am Beispiel des französischen Ancien Régime,” pp.131~133.

저하게 약화되어 있다. 방법론상으로는 의미장을 구성하는 기초 작업으로 어휘통계학이 중심에 서 있고, 지식사를 포괄하는 이론적 기반으로는 언어의 역사에 대한 통찰보다는 사회학적 관점이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법상 어휘통계학의 활용은 엄격하고도 체계적인 척도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반론의 여지가 없으나, 그것이 질적 연구와의 견실한 융합을 조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취약성을 노출하기도 한다. 질적 연구는 1차적 자료가 되는 문헌에 대해 기본적으로도 해박한 식견을 전제할 뿐만 아니라, 왜 특정 문건이 고찰 대상의 표본이 될 수 있는지 타당한 근거를 대야 하고, 개념 또는 단어의 선별 방식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또 해석에 있어서도 연구 대상에 대한 폭넓은 선행 지식과 문제사적인 관점이 적극 개입할 수밖에 없다.

결국 연구자의 비판적 시각과 문제 의식이 역사적 의미론의 성과를 좌우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 같은 사실은 지금까지 수행된 담론 분석적 어휘통계학의 성과에 비추어 보면 여실히 드러난다. 로뱅과 폐쇠는 계량적 측정에 만족하지 않고 의미장과 통합체적 분석을 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물은 ‘우리가 이미 역사적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을 입증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호화롭고 복잡한 작업 기술이 결국에는 빈약한 결과”만을 도출했다는 논평은<sup>34)</sup> 단순한 역설 이상의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의미 파악과 해석 그리고 의미장의 구조를 최종적으로 서술의 형태로 풀어낼 때,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에 의존하고 또 그것으로 환원하는 타성은 담론 분석적 어휘통계학이 가장 빈번하게 노출하는 맹점이다. 이러한 취약점에 라이하르트도 그리 자유로울 수 없는데, 그러한 점에서 사회사적 의미론이 “프랑스혁명을 새롭게 해명해 준 것이 과연 있는지” 의구심을 품는 것은<sup>35)</sup> 전적으로 정당하다. 이 부분은 일상 개념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상 개념 연구의 주된

동기 중의 하나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일종의 ‘낯설게 하기 효과’ (= 소격 효과, 브레히트, 벤야민)로 유도함으로써 일상성에 갇혀 잠들어 있는 의식에 새로운 인식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 있다. 만약 연구가 피상적인 해독에 머물러 역사적 인식을 도출할 수 없다면, 연구의 중요한 의의 하나를 상실하는 셈이 된다.

라이하르트는 담론 분석적 어휘통계학이 안고 있는 취약점을 명확하게 의식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자신의 기획이 아직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의 결과물에 반영할 수 없었지만, “텍스트 및 담론의 연관성”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주제별 집중 담론 분석”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는 데서 잘 나타난다.<sup>36)</sup> 이와 관련하여 언어학적 성찰을 통해 담론 분석을 심화·확장함으로써 역사적 의미론의 전망을 타진하는 또 다른 논의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독문 학자들이 제기한 담론 의미론과 의미의 역사성에 대한 성찰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 논의는 어휘통계학이 아니라 담론 분석의 방법과 시각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질적 연구를 특화·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특징을 이룬다.

### 1) 담론 의미론: 상호 텍스트성

디트리히 부세(Dietrich Busse)와 볼프강 토이베르트(Wolfgang Teubert)에 의해 제기된 담론 의미론은 ‘담론’을 알튀세르에서 푸코로 이어지는 구조주의가 아니라 언어학적 전통 속에서 이해한다. 간단히 말해, 언술의 내용, 어법, 언술에 함축되어 있는 전제, 언어 행위 등을 고찰하는 것이 담론 분석인데, 그것은 고전 문헌학이 수행했던 텍스트 분석, 이른바 텍스트학이라 부를 수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언어학적 담론 분석에서 단어의 의미, 문장의 의미, 텍스트의 의미는 그 의미적 관계 속에서 파악되며, 연관의 구조는 텍스

34) Schöttler, Peter(1988), “Sozialgeschichtliches Paradigma und historische Diskursanalyse,” p.166.

35) 김학이, 2009, 앞의 논문, 119쪽.

36) 라이하르트, 롤프(2009), 앞의 글, 82~83쪽.

트의 관계 속에서 고찰된다. 이러한 시각은 고전 문헌학의 전통을 현대 언어학적 관점에서 복원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따라 담론을 “잠재 텍스트 자료들(virtuelle Textkorpora)”로 이해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잠재 텍스트 자료들이란 텍스트를 무한히 조합 가능한 전체의 부분 집합으로 바라봄으로써 “열린 자료”로 이해하고, 부분 집합들의 “조합이 가장 넓은 의미에서 내용적 혹은 의미적 기준에 의해 규정”되는 것을 말한다.<sup>37)</sup> 그러한 규정이 충족되는 경우 조합된 텍스트는 담론의 자료로 지정되고, 이에 상응하는 담론 분석의 연구 대상이 설정된다.

결국 텍스트 자료로서 담론은 “상호 텍스트성”을 뜻한다. 부세와 토이베르트에 따르면, 상호 텍스트성은 페쇠의 “상호 담론적 관계”와 다를 바 없다. 페쇠의 상호 담론적 관계는 푸코가 “담론적 기제 또는 구조”라 일컫은 것, 정확하게 “상이한 텍스트 사례들의 언술 혹은 언술 복합체 사이에 존재하는 내용상의 관계”를 가리킨다. 바로 이 담론적 구조의 차원에서 상호 텍스트성은 상호 담론적 관계와 일치한다. 그러나 이러한 부합성에는 페쇠에게 미친 푸코의 영향으로 인해 일정한 간극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상호 텍스트성은 텍스트 자체를 중시하고, 그들 간의 밀접한 관계에 치중한 것이지만, 푸코의 담론적 기제는 텍스트들 간의 직접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그 자체로 독립적인 규칙으로 발전하는 구조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요컨대 푸코에게 있어 담론은 텍스트 자료가 아니라, 무수한 텍스트 사례들에서 나타나는 개별 언술 또는 언술 요소 간의 관계(= 언표<sup>enoncé</sup>)이다. 또 상호 텍스트성은 “말하는 주체 혹은 텍스트 저자”를 도외시킬 수 없지만, 푸코의 구조주의적 담론에서는 누가 말하는가가 아니라 언표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이 중요하다. 다만 페쇠가 푸코의 담론적 구조를 상호 담론적 관계로 규정했을 때는 그것이 텍스트를 지시하든 아니면 푸코의 언표를 가리키든 상관이 없어진다. 이 같은 상

황은 페쇠가 푸코의 담론 이론을 어휘통계학을 중심으로 의미론적 맥락으로 변형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것이다. 상황이야 어찌됐든, 부세와 토이베르트는 상호 텍스트성을 페쇠의 개념에 유리한 방향으로 접목시키고 있다.

담론 개념을 언어학적으로 구체화하려는 시도라면 어떤 것이든 궁극적으로 텍스트 자료의 조합이라는 문제를 피할 수 없다. (상호) 담론적 물질성(페쇠)의 구성은 동시에 텍스트 자료의 구성을 전제한다.<sup>38)</sup>

이로써 담론 개념은 문헌학적 의미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러한 변형은 “담론 분석을 단어 의미, 문장 의미 또는 텍스트 의미의 형식으로 볼 수 있게끔 한다.”<sup>39)</sup>

상호 텍스트론에서 의미적 관계 속에서 바라본 텍스트 자료의 조합은 연구 대상의 구성이나 다를 바 없다. 부세와 토이베르트는 담론 의미론의 방법으로 몇 가지 원칙을 제안하고 있다. ① 먼저 연구자는 텍스트 자료들을 어떤 기준을 통해 구성한 것인지,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② 텍스트 자료의 구성은 이미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전제하며, 따라서 대상 규정 및 자료 선정은 이미 연구자의 해석을 전제한다. 달리 말해, 자료군의 구성 자체가 이미 해석인 셈이다. ③ 상호 텍스트성에서 나타나는 담론의 의미적 연관성은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재구성되며, 내용상 함축하고 있는 구조적 특성은 납득할 만한 논증을 통해 제시된다. ④ 이 같은 근거의 제시와 논증은 그 어떤 구속력을 갖지 않는 임의적 행위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연구자는 연구 대상을 설정할 때 가설에서 출발하고, 그것이 결과물에서 납득할 만한 것으로 나타날 때 자신의 가설을 입증하는 것이 된다. 결국 담론 의미론은 연구자의 문제 의식, 문제 제기, 그 인식론적 가치의 비중에 달려 있다고 말

37) Busse, Dietrich/Teubert, Wolfgang(1994), “Ist Diskurs ein sprachwissenschaftlicher Objekt? Zur Methodenfrage der historischen Semantik,” p.14, p.15.

38) Busse, Dietrich/Teubert, Wolfgang(1994), 앞의 논문, p.15.

39) Busse, Dietrich/Teubert, Wolfgang(1994), 앞의 논문, p.22.

할 수 있다. ⑤ 담론의 의미를 파악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텍스트 ‘읽기’이다. 그러나 단순한 독서가 아니라, 선별된 텍스트 자료의 “읽기에 구속력을 가지면서 읽기 구조 자체가 변하는”(폐쇄) 독해이다. 이 같은 읽기론은 텍스트를 원칙적으로 “열린 자료”로 보는 시각에 바탕을 둔 것으로, 특정 텍스트의 의미가 어떤 통상적 의미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담론의 상호 관계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띠면서 새로운 의미들이 표면에 떠오른다는 뜻이다. 읽기는 개별 텍스트를 보다 더 잘 이해하는 것에 목적을 둔 것도, 텍스트 저자가 실제 무엇을 말했는가를 밝히는 데 중점을 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자료 형성을 점차적으로 교정하는 읽기”, “텍스트에서 말해진 바의 가능성에 함축되어 있는 전제들이 상호 담론상의 (상호 텍스트상의, 의미상의, 에피스테마상의, 주제상의, 사유상의) 관계에서 생겨난 결과라는 것을 밝히려는 읽기”이다.<sup>40)</sup>

이렇듯 상호 텍스트론은 어휘통계학에 비해 방법론상 그 형식의 엄격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느슨한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연구자의 주체적 역량에 좌우되는 질적 연구에 집중해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역사적 인식을 도출하는 데 유용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 2) 의미의 역사성: 열린 의미장

상호 텍스트론은 담론 분석과 의미론을 결합하는 데 있어 주체의 발화(텍스트의 저자)에 천착하기 때문에 푸코와 일정한 거리를 두는 반면, 카를하인츠 슈티를레(Karlheinz Stierle)는 텍스트학적인 논거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현대 언어학의 체계 패러다임을 언어의 역사, 즉 의미의 생성 및 변천이라는 역사성을 중심으로 성찰함으로써 푸코의 담론 이론에 대해 상대적으로 열린 태도를 취하고 있다. 슈티를레의 핵심적 논지는 개인적 언술로서 파롤은 항상 바로 그 주체성에 선행하는 언어적 심급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렇게 개입하는 언어의 질서, 특히 “언어외적인 목적”과 결부된 언어의 질서가 바로 담론이다.<sup>41)</sup> 담론이란 언어 행위의 도식이고, 그 장소는 각각 특수한 형식으로 자리 잡은 담론 제도이다. 이렇듯 슈티를레는 정확하게 제도화된 언술 방식이라는 푸코의 개념 속에서 담론을 이해하고 있다. 물론 푸코의 담론 개념을 역사적 의미론에 직접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먼저 푸코에게는 단어의 역사성에 대한 성찰도, 단어의 역사성과 담론의 역사성 간의 상관 관계에 대한 성찰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 그의 담론 이론은 과학 담론과 그 제도성에 정향되어 있기 때문에 담론의 실천 영역을 확장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요컨대 사회는 담론의 사회성으로 규정될 수 있다. 담론의 활용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은 사회의 불평등이며, 담론 참여자의 불평등한 관계를 규정한다. 그것은 사회에서 순환하는 지식, 지식 생산의 수단 및 그 전유에 대한 활용이 불평등하다는 뜻이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슈티를레는 담론의 질서 속에서 언어의 역사성이 가시화된다고 본다. 달리 말해, 담론의 역동적인 질서 속에서 의미가 새로이 발생하고, 변형하며 또 사멸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논거는 트리어의 의미장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서 마련되고 있다. 트리어의 의미장을 방법론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은 애초 언어가 자율적으로 의미장을 규정한다고 간주한다. 그러나 구조로서 의미장이 제시될 때, 구조를 구획한 경계 짓기는 언어가 아니라 담론의 실천 영역에 의해 이루어진다.

언어 자체가 장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실천 영역들에 인접해 있고 그것들과 겹치며 또 그것들에 의해 중층화되는 한 실천의 영역이 그때그때 새롭게 장을 규정한다.<sup>42)</sup>

40) Busse, Dietrich/Teubert, Wolfgang(1994), 앞의 논문, pp.17~18.

41) Stierle, Karlheinz(1979), 앞의 논문, p.163.

42) Stierle, Karlheinz(1979), 앞의 논문, p.160.

의미장의 구조가 특정 담론의 실천 영역이 여타 실천 영역과 경계를 지으면서 구축된다면, 의미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열쇠는 바로 특정 담론의 실천 영역이 다른 실천 영역과 중층화되는 지점에 있다. 서로 다른 실천의 영역 사이에 횡단이 이루어지면서 상호 담론적인 관계가 형성되는데, 여기에서 의미의 변화가 생겨난다. 즉 “어떤 단어가 고정된 장소에서 쓰이는 담론의 실천에서 그것이 아직 쓰이지 않는 다른 담론의 실천으로 옮겨가는 경우”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럼으로써 의미 변화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이동은 보통 ‘은유’나 ‘환유’의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낯선 단어의 유입은 관점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대한 저항이 심한 경우에는 의미의 축소가 일어나고, 반대로 관대한 수용은 의미 확대를 가져온다. 단어 횡단의 대표적인 사례로 “저널리즘의 연술”을 꼽을 수 있다. 이 영역에서는 아주 특화된 담론과 학술 용어 그리고 일상계의 담론 사이의 지속적인 교환이 이루어진다.<sup>43)</sup>

푸코에 따르면, 담론은 두 가지 상반된 경향이 있다. 담론은 질서를 지향하는 한편, 사건성과 우연성에 노출되어 있다. 이 두 경향은 서로 작용하고 반작용하면서 새로운 담론의 계열을 창출하기도 하고 우연성에 노출된 담론을 견제하기도 한다. 이렇듯 담론의 분화 과정에 따라 질서를 확보하는 담론이 생기기도 하고, 실현되지 못하는 담론 계열들도 있다. 결국 담론의 제도화는 역동적 운동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한편 생성된 의미는 담론 공간에서 수용되는 정도에 따라 안정화되고 또 분화되며, 담론 도식의 형성과 관련을 맺거나 또는 제도화된 담론 속으로 유입된다. 의미가 최종적으로 사회적인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담론의 질서에 편입되어야 한다. 슈티를레는 담론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의미 변화의 역동성을 표현하기 위해 구조적 의미장을 통일의 원리보다는 분화의 원리로 바라본다. ‘단어의 계열체상의 분화(비교 가능한 의미)와 통합체상의 분화(결합과 종합의 담론 자체에 의해 규정

43) Stierle, Karlheinz(1979), 앞의 논문, pp.179~181.

된 원리’라는 구상은 의미의 역사성을 반영한 결과이다.<sup>44)</sup>

라이하르트트는 개념의 사용이 담론의 실천 영역을 옮겨감에 따라 “무계중심이 이동하고 의미가 확장되거나 또는 축소”된다고 밝히고 있다.<sup>45)</sup> 아울러 자신의 사회사적 의미론이 “완전히 통일된 사고”를 재구성하려는 경향으로 인해 “마치 특정한 문화의 심성들이 그 자체로 닫힌, 완전히 동질적인 기호 체계”인 듯한 인상을 심어 준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러한 단조로움과 ‘조화로움’은 한 사회 내에서 대개의 경우 동시에 공존하거나 서로 경쟁적인 특정한 실천 영역들(종교, 법, 정치 등), 사회적 집단들과 문화적 ‘수준’의 담론적 다양성과 일치하지 않는다.”<sup>46)</sup> 이러한 자기 비판적 진술은 전적으로 슈티를레의 견해에 동의한 결과이다. 사회사적 의미론의 취약점은 무엇보다도 의미장의 구성에 있다. 라이하르트가 제시한 의미장에서는 의미의 변천을 읽어낼 수 있다기보다는 의미의 통일적인 구조를 보게 된다. 서로 다른 시기를 준거로 작성된 의미장들을 서로 비교해 본다 하더라도 의미의 변천을 읽을 수 있는 분화의 지점들이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다음 시기와 연결된 분화의 전개 과정을 파악할 수가 없다. 슈티를레의 의미의 역사성에 대한 성찰은 바로 이러한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닫힌 의미장을 열린 의미장으로 이해하는 제안이라고 볼 수 있다.

## 5. 결론

상호 텍스트론과 열린 의미장론은 어휘통계학에 바탕을 둔 사회사적 의미론의 취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상호 텍스트론은 방법론상 느슨한 형식을 취하고 있고, 의미의 역사에 대한 성찰은 연구자

44) Stierle, Karlheinz(1979), 앞의 논문, p.176.

45) Reichardt, Rolf(1985), 앞의 논문, pp.83~84.

46) 라이하르트, 로프(2009), 앞의 글, 86쪽.

의 시각을 교정하고 새로운 문제 제기에 유용한 원리적인 지침을 제공하지 만, 어휘통계학보다 더 체계적이고 엄격한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문제 의식과 문제 제기를 통해 독립적으로 시도될 수 있는 질적 연구 는 개념의 역사적 변천을 고찰·서술하기 위해 고고학적 방법을 채택할 수 있을 것이다. 일종의 의미의 계보학이라 할 수 있는데, 주제별 또는 개념별 연구 대상을 그 변천의 양상을 좇아 계열화하고, 각 계열을 밀도 있게 분석 함으로써 의미의 분화를 파악하면서 대상의 계보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 방 법은 역사적 인식을 도출하기 위한 일환으로 고문서에 문헌 다양한 텍스트 를 발굴하는 것 외에도, 연구 대상의 범위를 완벽하게 포괄할 수는 없기 때 문에 표본 추출 자체가 중요해진다. 표본이 얼마만큼 역사적 인식의 가치가 될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이러한 방법이 어휘통계학 의 강점인 정확성과 엄격성을 따라잡는 것은 아니며, 또 그것보다 더 우월하 다고 말할 수도 없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어휘통계학적 연구와 상호 텍스트적 연구 그리고 열린 의미장의 맥락 속에서 포착된 담론 분석이 서로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 집중 적인 질적 연구에서 파생된 문제 제기는 이를 관찰하기 위해 어휘통계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제안된 가설을 실증성과 정확성으로 뒷받침할 수 있고, 텍 스트에 출현하는 단어들을 빠짐없이 확인할 수 있는 어휘통계학적인 면밀성 과 미시적 결과물은 질적 연구의 작업을 교정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제 제기에 자극제로 작용하기도 한다. 요컨대 이 두 가지 방법을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다른 방법상의 관점의 차이로서 보완의 관계로 볼 수 있다. 연구 대상의 설정과 과정 속에서는 이 두 방법 모 두가 교호하는 관계에 있고, 다만 결과물의 실현은 둘 중 어느 하나의 형식 을 취하게 된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어떤 개념이 연구 대상으로 설정되는가이다. 방법 의 채택은 대상의 성격과 무관할 수 없고, 어떤 경우에는 그것에 의해 좌우 된다. 예컨대 일상 개념 연구가 상징과 이미지, 아이콘 분석 등으로 확장하

는 경우, 어휘통계학도 텍스트학의 의미론도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심성 사 연구를 심화·발전시키는 경우, 기호론도 텍스트 중심이 아니라 이미지 기호론이 필요하며, 텍스트 개념도 또한 문자 중심에서 탈피한 거대한 확장 을 요한다. 이는 연구 대상이 문학 및 문화만이 아니라 예술의 영역으로까지 확장되는 것을 뜻하는데, 그에 상응하는 인식 발견술적인 보조 수단으로 도 상학 연구의 분석 방식이 유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로써 알 수 있듯이, 일 상 개념 연구는 어떤 하나의 완결된 모델을 단순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해결 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 조응하는 이론적·방법적 성찰이 수반되는 개척 의 도정에 있다.

---

**■ 참고문헌**


---

## 1. 단행본

코젤렉, 라인하르트(2007), 『지나간 미래』, 한철 옮김, 문학동네.

Busse, Dietrich(1987), *Historische Semantik. Analyse eines Programms*, Klett-Cotta, Stuttgart.

Herder, Johann Gottfried(1960), *Sprachphilosophie. Ausgewählte Schriften*, hrsg. von E. Heintel, Hamburg.

Humboldt, Wilhelm von(1963), *Schriften zur Sprachphilosophie*, Werke Bd.3, Darmstadt.

## 2. 논문

김학이, 2009, 「롤프 라이하르트의 개념사」, 『개념사의 지평과 전망』(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개념소통연구시리즈1), 박근갑 외, 도서출판 소화.

나인호, 2009, 「개념사는 어째서 새로운가」, 『개념사의 지평과 전망』(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개념소통연구시리즈1), 박근갑 외, 도서출판 소화.

라이하르트, 롤프(최용찬 옮김)(2009), 「역사적 의미론: 어휘통계학과 신문화사 사이 — 관점 정리를 위한 예비 고찰 —」, 『개념사의 지평과 전망』(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개념소통연구시리즈1), 박근갑 외, 도서출판 소화.

쇠틀러, 페터 외(2002), 「심성, 이데올로기, 담론 — 제3차원의 사회사적 주제화에 대해서」, 『일상사란 무엇인가』, 나종석 외 옮김, 청년사.

Busse, Dietrich/Teubert, Wolfgang(1994), “Ist Diskurs ein sprachwissenschaftlicher Objekt? Zur Methodenfrage der historischen Semantik,” in: Dietrich Busse/Fritz Hermanns/Wolfgang Teubert(Hg.), *Begriffsgeschichte und Diskursgeschichte. Methodenfragen und Forschungsergebnisse der historischen Semantik*, Westdeutscher Verlag, Opladen.

Gumbrecht, Hans-Ulrich(1979), “Für eine phänomenologische Fundierung der sozialhistorischen Begriffsgeschichte,” in: Reinhart Koselleck(Hg.),

*Historische Semantik und Begriffsgeschichte*, Klett-Cotta, Stuttgart.

Hermanns, Fritz(1995), “Sprachgeschichte als Mentalitätsgeschichte. Überlegungen zu Sinn und Form und Gegenstand historischer Semantik,” in: Andreas Gardt/Klaus J. Mattheier/Oskar Reichmann(Hg.), *Sprachgeschichte des Neuhochdeutschen. Gegenstände, Methoden, Theorien*, Max Niemeyer Verlag, Tübingen.

Jehle, Peter(1990), “Alltäglich/Alltag,” in: Karlheinz, Barck u.a.(Hg.), *Ästhetische Grundbegriffe: Studien zu einem historischen Wörterbuch*, Bd.1, Akademie-Verlag, Berlin.

Koselleck, Reinhart(1972), “Einleitung,” in: Otto Brunner/Werner Conze/Reinhart Koselleck(Hg.), *Geschichtliche Grundbegriffe: Historisches Lexikon zur politisch-sozialen Sprache in Deutschland*, Bd.1, Klett-Cotta, Stuttgart.

\_\_\_\_\_ (1983), “Begriffsgeschichtliche Probleme der Verfassungsgeschichtsschreibung,” in: *Gegenstand und Begriffe der Verfassungsgeschichtsschreibung*, Tagung der Vereinigung für Verfassungsgeschichte in Hofgeismar am 30-31. März 1981, Der Staat, Beiheft 6, Helmut Quaritsch(Ed.), Duncker Verlag, Berlin.

Link, Jürgen(1988), “Literaturanalyse als Interdiskursanalyse. Am Beispiel des Ursprungs literarischer Symbolik in der Kollektivsymbolik,” in: Jürgen Fohrmann(Hg.), *Diskurstheorien und Literaturwissenschaft*, Suhrkamp, Frankfurt.

Plumpe, Gerhard(1988), “Kunst und juristischer Diskurs. Mit einer Vorbemerkung zum Diskursbegriff,” in: Jürgen Fohrmann(Hg.), *Diskurstheorien und Literaturwissenschaft*, Suhrkamp, Frankfurt.

Polenz, Peter von(1973), “Rezension von Brunner/Conze/Koselleck 1972, Bd.1,” in: *Zeitschrift für germanistische Linguistik* 1.

Reichardt, Rolf(1978), “‘Histoire des Mentalités’: Eine neue Dimension der Sozialgeschichte am Beispiel des französischen Ancien Régime,” in:



*Internationales Archiv für Sozialgeschichte der deutschen Literatur* 3.

- \_\_\_\_\_ (1985), "Einleitung," in: Rolf Reichardt/Eberhard Schmitt(Hg.), *Handbuch politisch-sozialer Grundbegriffe in Frankreich 1680-1820*, Heft 1/2, R. Oldenbourg Verlag, München.
- \_\_\_\_\_ (2000), "Wortfelder - Bilder - semantische Netz. Beispiele interdisziplinärer Quellen und Methoden in der Historischen Semantik," in: Gunter Scholtz(Hg.): *Die Interdisziplinarität der Begriffsgeschichte*, Archiv für Begriffsgeschichte Sonderheft, Felix Meiner Verlag, Hamburg.
- Schöttler, Peter(1988), "Sozialgeschichtliches Paradigma und historische Diskursanalyse," in: Jürgen Fohrmann(Hg.), *Diskurstheorien und Literaturwissenschaft*, Suhrkamp, Frankfurt.
- Schultz, Heiner(1979), "Begriffsgeschichte und Argumentationsgeschichte," in: Reinhart Koselleck(Hg.), *Historische Semantik und Begriffsgeschichte*.
- Stierle, Karlheinz(1979), "Historische Semantik und die Geschichtlichkeit der Bedeutung," in: Reinhart Koselleck(Hg.), *Historische Semantik und Begriffsgeschichte*, Klett-Cotta, Stuttgart.

## Abstract

### Study on the Concept of Everyday Life

— A Proposal for Establishing a Theory and Methodology —

Jihyun Ko(HK Research Professor of HAS at Hallym University)

■ Key Word : The concept of everyday life(history of everyday life), Mentality, Rolf Reichardt, Intertextuality, Semantic field(conceptual field).

The theory and methodology of the concept of everyday life finds its way on the major issues and prospects of historical semantics, which was developed after Reinhart Koselleck's History of Concepts. Rolf Reichardt's social historical Semantics extended a theoretical category of historical semantics into a history of mentality, and raised the possibility of the scientific and methodical study of the massive data in the texts of everyday life by combining lexical statistics with the structural semantic field. But lexical statistics has a weakness which involves quantitative methodology, in the way that lexical statistics can solidly unite with qualitative research. In this respect, intertextuality, which intensifies and deepens historical semantics into discourse analysis, is proposed as an alternative for building up qualitative research. Meanwhile, one can find a unifying structure of meaning simply by reading the changes in meaning in the semantic field based

on lexical statistics. At this point, one can have doubts about the historicity of meaning: when, and in which conditions, do new meanings occur? Reflection on this question, consequently, suggests an understanding of the semantic field as an open structure rather than as a closed structure.